

조선시대 여성수식장신구 연구 및 문화콘텐츠화 방안

A Study on the Women's Hair Jewelry of Chosun Dynasty and a Plan for its Cultural Contents

정아영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주얼리디자인전공
박사과정

Chung A Young

Ph.D in Metal Jewelry Design Graduate School
of Techno Design Kookmin University

요약

장신구라 함은 신변 장식품으로서 태초 인간의 장식본능에 의해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여성수식장신구는 화려한 구성미와 풍부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문화원형의 콘텐츠화에 충분한 연구대상이다. 전통장신구는 공예미의 결정체로서 뛰어난 조형성과 기능성은 창의력과 상상력의 근원이다. 보존이 유한한 전통장신구를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하고 뛰어난 조형요소의 원형을 개발하여 문화산업활용에 공급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장신구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교육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여성수식장신구의 분류 및 기법, 소재, 상징적 의미, 등을 디지털 이미지로 개발하여 콘텐츠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ccessories originated from men's ornamental instinct in the beginning as a body ornament. Women's accessories in the Joseon Dynasty have splendid structure and rich symbolism, so they are enough to be a target of the study for being contents of Korea's cultural archetype. Traditional accessories are the foundation of excellent formative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due to the extreme beauty of craft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rchetype of excellent formative factors by making traditional accessories digitalized for perpetuation in order to apply them to the culture industry. In addition, it is to prepare the educational foundation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accessories in a modern way. Therefore, this researcher intends to develop constituents of traditional accessories by means of digital images and suggest digital contents methods of accessory techniques by dividing constituents, techniques, materials, symbolic meaning, and attire and wear.

I. 연구목적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정교한 금속공예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여성용 장신구를 제작하고 착용했다. 특히 조선시대의 장신구는 화려한 장식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원형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화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수식장신구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 그리고 재료 및 기법을 정리하여 디지털 콘텐츠화 함으로써 전통문화원형을 보존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의 장신구 교육은 서양식 디자인 교육과 제작기법에 익숙하여 소재의 선정과 조형성에 있어서 한국적 감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여성장신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신구에 대한 교육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장신구 디자인 및 교육에 전통적 미학의 현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오늘날에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을 얼마나 많이 디지털화 시켰는가가 그 사회의 경쟁력을 대변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의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첫째, 전통 장신구의 원형보존을 위한 디지털화이다. 먼저, 수식장신구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측을 통해 일차적 자료를 수집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형적 가치가 있는 궁중 및 반가용 수식장신구를 수집범위로 한정하여 각 박물관에 소장 중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경의 비녀, 뒤꽂이, 첩지, 떨잠, 빗치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장신구의 형태를 먼저 도안화하고 원형색상을 추출하여 2D로 제작한다.

둘째, 원형자료의 문화산업적 활용을 위해 전통장신구 이미지를 활용하여 캐릭터 및 문화상품을 개발한다. 먼저, 2D로 제작한 원형자료 가운데 디자인 활용이 가능한 문양과 색채를 현대적으로 도안화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Book화 한다. 또한, 여성장신구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고 현대인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성을 선별하여 상품적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셋째, 현대 장신구 디자인 및 교육에의 활용을 위하여 전통적 소재 및 기법을 디지털 자료화 한다. 앞서 수집한 일차적 자료 가운데 수식장신구에 사용된 금속류, 보패류를 분석, 정리하고 전통기법 중 칠보, 니사, 조금, 주조 기법을 2D로 재현하여 교육적 자료로서 활용한다.

소재의 경우, 전통장신구에 사용된 호박, 옥, 비취, 진주, 산호, 비취모, 금, 은 등을 사용한 유물 이미지를 선정하여 하나의 예로써 제시한다. 기법의 경우, 전통적인 제작과정을 사진 이미지로 단계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교육 자료로 제시한다.

[3] 황동열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발표논문집 제8집, 2005.

■ 참고 문헌 ■

- [1] 최준자 “장신구의 세계”, 서울, 예경, 1992.
- [2] 김봉희 “조선시대 여성 장신구의 현대적 변용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